

# 오월 광주



## 기억해 줘

도청 앞 회화나무·현판 이미지 등 넣어  
전국으로 무료 엽서 보내기 프로젝트 진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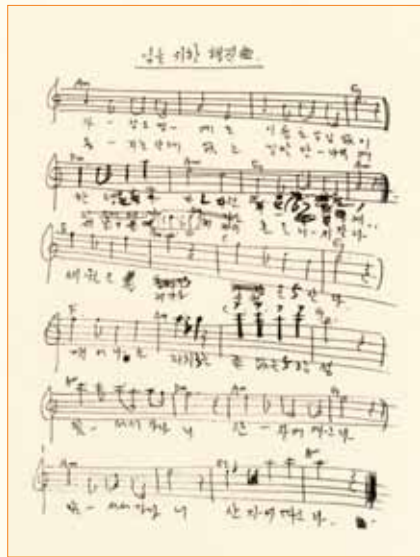
광주극장 등 시내 14곳서 작성 가능  
“안부 묻는 게 공동체의 또다른 모습”

“할머니. 난 지금 더 좋은 세상을 위해 공부하고 견고 소리치고 있어. 여기 사람도 많고 볼 것도 많은데 할머니도 보면 좋겠다. 광주는 가 본지 오래됐는지? 광주에서 보내는 편지라도 받아보셔. 2017년 5월 17일 광주 금남로에서 손녀가.”  
“안녕, 잘 지내고 있지? 나는 지금 광주 전남도청 앞에 있어. 직접 그날을 기억하고 계시는 어머님의 이야기는 눈물도 못참을 정도였지. 너가 이 날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

모박모박 엽서에 써내려간 손글씨엔 정성이 가득 담겼다. 멀리 있는 가족에게, 오랫동안 연락 못한 친구에게 ‘마음’을 담아 보낸 엽서들이다. ‘오월, 광주 거리 어디에서 당신에게 엽서를 띄웁니다. 잘 계신가요.’ 1980년 오월 그날과 오늘을 잇는 ‘오월 기억 프로젝트’ 중 ‘오월, 광주에서 보내는 안부’가 눈길을 끌고 있다. 1980년 오월을 온전히 지켜본 존재들을 이미지화 한 엽서에 글을 써 ‘오월 우체통’에 넣으면 전국 어디든지 무료로 발송해준다.

5·18 민중항쟁행사위원회 사업 중 하나인 엽서 프로젝트를 진행한 이는 김지현(33), 김지은(33), 윤연우(32) 씨다.

행사위에서 일하는 지은 씨는 ‘일상에서 오월을 만나는 작업’을 진행중 개인들이 중심이 돼 ‘오월의 기억’을 이어가는 방법을 찾았고, ‘엽서’에 관심이 많았던 활동가 지현씨와 의기투합했다. 여기에 전남대에서 공예를 전공한 연우씨가 디자인으로 합류했다.



‘입을 위한 행진곡’ 악보(위)와 전남도청 정문과 현판(아래)을 활용한 엽서.

세 사람이 가장 많이 고민한 건 엽서에 새길 ‘광주 상징 이미지’를 찾는 작업이었다. 다양한 자료를 연구하던 그들에게 힘을 보태 준 건 사진작가 김향숙씨였다. 5·18 당시 고등학생 시민군이었던 김씨는 이후 옛 전남도청을 비롯해 오월의 흔적을 끊임없이 영글어 담아온 인물이다. 오랜 논의를 끝에 옛 전남도청 앞 회화나무와 전남도청 정문의 출입문과 현판이 이미지로 확정됐고 디자인 작업을 진행했다.

“김 작가님과 만나 회화나무 등에 대한 많은 이야기를 듣고 도청 인근을 탐방하면서 예전에는 미처 알지 못했던 것들에 대해 알게됐어요. 신경쓰지 않으면 놓쳐 버리는 것들이죠. 회화나무와 도청 등은 모두 1980년 현장을 지켜본 존재들이고 그 이미지를 엽서에 넣게 됐습니다.”(김지현)



### 오월, 광주에서 보내는 안부



‘오월, 광주에서 보내는 안부’의 김지현·김지은·윤연우(왼쪽부터)씨.

연우씨는 도청과 회화나무, 광주를 바라보는 또 다른 존재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작품에 담아 작은 검은색을 그려 넣었다. 연우씨는 전업작가로 활동하며 광주극장 대표소에서도 일하고 있다. 집 자무시 특별전 등 극장의 많은 행사 포스터가 그녀의 작품이다.

광주의 상징수이자 80년 오월을 지켜본 ‘시간의 증인’ 회화나무는 2012년 태풍 불라벤의 바람에 쓰러져 생을 마쳤지만 다행히 후계목이 발견돼 지금 사라진 나무의 숨결을 잇고 있다. 전남 도청 현판은 2005년 도청 청사 이전으로 창고에 방치된 후 고물상에 넘어갈 뻔한 것을 한 시민이 발견한 덕에 현재는 5·18기록관에 보관 중이다.

이번에 제작한 엽서는 회화나무, 전남도청 이미지와 ‘입을 위한 행진곡’ 악보, 1980년 민주화대성회 사진(나경택 촬영) 등 모두 8종, 8000장이자다. ‘오월, 광주에서 보내는 안부’ 등 글자는 파주 출판공방에서 직접 활자를 골라 찍어냈고 판화 원판을 제작해 직접 찍어볼 수 있도록 했다. 엽서는 5·18 민주화운동기록관, 광주극장, 페드로게스트하우스, 양림도서관, 일곡자연드림, 동네책방 숲 등 14곳에서 만날 수 있다.

이 프로젝트는 인기가 많다. 5월 기간 중 전국에서 방문객들이 각지에 엽서를 띄웠고 외국인들의 참여도 많았다. 액자로 만들어 걸어두겠다, 선물하겠다, 지역에 가져가서 함께 나누겠다는 사람들도 눈에 띄었다.

“오월 광주의 공동체 정신에 대해 많이 이야기하잖아요. 일상의 시간을 잠시 멈추고 서로의 안부를 묻는 것도 바로 공동체의 또 다른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엽서를 앞에 두고 누구에게 글을 쓸까 고민하며 여러 사람을 떠올리게 되는 시간 자체가 귀한 겁니다. 친구들이 어떻게 사는 지, 가족들은 건강히 있는지 안위를 한번 더 생각하는 거죠. 이번 엽서 프로젝트는 기억을 이어가는 작업이라고 생각해요. 시민들이 계속 기억을 이어가는 거죠. 우리가 기억하면 이 도시가 기억하고, 이 엽서를 받는 사람이 또 다시 기억하며 이어가는 겁니다. 전국에서, 세계에서 오월을, 광주를 기억해 주길 바랍니다.”(김지현)

엽서 프로젝트는 오는 31일까지 계속된다. 마음에 떠오른 누군가에게 오월이 가기 전, 엽서를 써보자. ifhyun35@gmail.com. 문의 010-5318-0367.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 色色에 희망 담겼네

정용규 ‘빛과 희망의 노래’전...31일까지 금호갤러리

풍성한 색깔로 희망을 작품에 담고 있는 정용규 작가가 신작을 들고 광주에서 7년 만에 개인전을 연다. 정 작가가 25일부터 31일까지 유·스퀘어문화관 금호갤러리에서 ‘빛과 희망의 노래’를 주제로 전시를 연다.



‘생명의 노래’

정 작가는 이번 전시에서 신작 ‘꿈과 희망의 노래’ 연작, ‘사랑의 위한 노래’ 연작 등 50여점을 선보인다.

작품은 조개가루를 아교에 개어 덧바르며 두터운 질감을 표현한 반부조 형식이 특징이다. 조개가루로 인해 생긴 그림자는 한층 작품을 비추는 빛을 돋보이게 한다.

작품 ‘꿈과 희망의 노래’는 해바라기로 태양을 표현하고 새, 사람을 등장시켜 정감어리면서 밝은 이미지를 연출했다. 조개가루를 사용한 윤곽선은 작품 전체에 입체감을 부여하며 밝은 세상을 기원하는 정작가의 마음을 전한다.

앞수 사슴 두마리가 머리를 맞대고 있는 ‘사랑을 위한 노래’는 남녀간 사랑을 의미한다. 의인화한 사슴 머리 위로 빛나고 있는 태양과 알록달록한 숲이 분위기를 강조시킨다.

또 ‘산수유 꽃피는 봄날’은 산골마을에서 마을 사람들이 겨우내 씨앗과 과육을 알니로 분리하는 작업에서 모티브를 얻었다. 마을 사람들의 반복되는 노동을 본작가는 꽃잎 하나하나를 나이프로 찍어 그리

며 예술적 노동과 삶의 진실을 이야기한다. ‘부영이 가족 마을 이야기’는 오래 전부터 우리들과 함께 살아온 지혜를 상징하는 부영이를 보호하고 자연과 어우러지자는 메시지를 전달한다.

가로 291cm·세로 182cm 크기 대작 ‘빛과 희망·영원한 무등의 노래’는 지역 풍경을 재해석했다. 무등산 서석대 위로 선녀들이 날고 있고 산 곳곳 핀 벚꽃이 눈길을 끈다. 한쪽에 자리한 부영이 가족은 정겨운 눈빛으로 관람객들을 맞는다.

지난해 광주일보 ‘광주로 띄우는 그림 편지’에 참여한 작가는 전시장 한켠에 삽화와 함께 게재한 채코와 러시아 여정기를 배치해 볼거리를 더한다.

정씨는 조선대 미술대학 회화과를 졸업하고 1983년 첫 개인전을 시작으로 활발히 작업하고 있다. 대한민국미술대전 특선, 광주시미술대전 대상 등 다수 상을 수상했고 현재 그룹 ‘새벽’, 신작전, 토만사 회원으로 활동 중이다. 문의 062-360-8432.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 이정록 ‘Tree of Life #1’ 英 필립스옥션 3290만원 낙찰

광주 출신 이정록(46) 사진작가의 작품 ‘Tree of Life #1’(사진)이 소더비, 크리스티와 더불어 세계 3대 옥션으로 꼽히는 영국 필립스옥션에서 지난 18일 2만2500파운드(한화 3290만원)로 낙찰돼 주목받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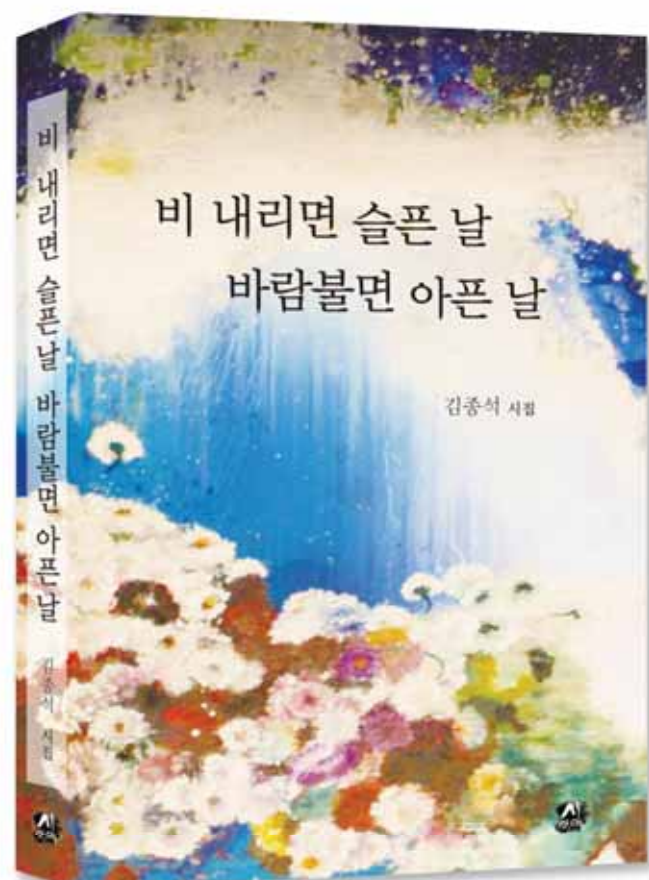
이번 낙찰가는 한국 판매가의 약 3배 이상 가격으로, 지역 사진작가들의 국제적 위상이 높아진 점을 엿볼 수 있어 의미를 더한다. 이 작가의 ‘Tree of Life #1’은 제9회 광주신세계미술제 대상 수상작으로, 안개 속에서 생명의 빛을 발하는 나무의 모습을 표현한 작품이다.

이번 경매는 런던 필립스에서 열리는 사진 경매의 프로그램 중 하나인 ‘Ultimate Contemporary’ 특별 세션이다. 전세계 유명 사진가 앙리 카르티에 브레송, 로버

트 프랭크, 어빙 펜 작품이 출품됐다. 이씨는 광주대 산업디자인과를 졸업하고 홍익대 산업미술대학원 사진디자인 전공, 로체스터공과대학(R.I.T) 영상예술대학원 순수사진을 전공했다. 영국, 미국, 서울 등 국내외에서 개인전을 열며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김용희기자 kimyh@

## 비 내리면 슬픈 날, 바람불면 아픈 날

사랑과 이별의 과정에서 가질 수 있는 슬픔, 고통, 죽음, 이별, 후회, 반성의 시편들과 함께 진정한 자아를 찾아가는 과정



양장본 · 198쪽 · 값 20,000원 **시산맥** 02-764-8722

### 장미의 외출중에서

김종석 시인의 시 속에서 내 젊은 날의 방향과 열정을 만난다. 시인은 지금도 ‘장미의 외출’을 꿈꾸며, ‘눈멀고 귀 멀어도, 나 거기서 죽겠’ (‘사랑했었네.’)라는 순수한 영혼을 만나고 있다. 또한 ‘밤이면 내 가슴에 별’ (‘별들은 내 발걸음 함께 하며’)을 꽃피우며 ‘천상에 들려오는 노래처럼’, ‘무릎을 꿇고 기도’ (‘별이 비워둔 곳을 향해’)하는 어린 천사를 만난다. ‘누군가를 기다리며 피어있는’ (‘사막에 피어있는 장미꽃 한 송이’) 장미꽃 한송이! 그는 분명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것이다. ‘그녀가 나를 향해 달려왔던’ (‘바다가 달려온다.’) ‘우리네 젊었던 옛 시절’ (‘나무’)이 스르르처럼 지나간다. 시의 행간 속에서 잃어버린 영혼을, 그리움을, 두근거리는 설렘을 되찾게 해준 김종석 시인을 축하한다.

- 이정호(영화감독, 한국영상위원회 위원장)

조국의 산천을 떠나 먼먼 이국땅에서 모국어로 시를 쓴다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니다. 더구나 시심(詩心)의 바탕을 유지하면서 인생과 사랑과 대자연의 풍경을 자기화한다는 것은 결국 자기 본연의 마음을 되찾기 위한 긴 여정이기도 하다. 김종석 시인의 이번 시집은 파란만장했던 지난 한 생을 지나오는 동안 누구보다도 ‘가슴 속 통풍’의 세월을 보내었기에, ‘평생 한 여인만을 사랑’하며 살았기에, 인생이란 이름의 ‘슬픈 사랑’을 시편 곳곳에서 만날 수 있다. 그는 ‘영원히 바람이고 싶었던 영혼’을 지닌 사람이다. 그러기에 그는 오늘도 ‘맘마뒤편에 울부짖던 대나무숲’ 그늘에서 서성이고 있을 것이다.

- 이승철(시인, 한국문학평화포럼 사무총장)



김종석 시인

e-mail: kimjongsuk2500@gmail.com

- 약력
- 1977년 캐나다 이민
- 캐나다 한국일보 신춘문예 입성시(부문)
- 캐나다한인문인협회 회원
- 2014년 계간 ‘시현상’ 여름호로 등단
- 한국기독교문인협회 회원

- 시집
- 2014년 『나는 내 소리를 잃었네』 발간
- 2016년 『장미의 외출』 발간